

# 현안과 과제

- 환율 안정은 한·미 경제성장률 격차 축소가 해법이다  
- 원/달러 균형환율의 추정과 시사점

# 목 차

---

## ■ 환율 안정은 한·미 경제성장률 격차 축소가 해법이다

- 원/달러 균형환율의 추정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i
1. 최근 원/달러 환율 동향 .....	1
2. 원화 약세의 원인 .....	2
3. 원/달러 균형환율 추정 .....	3
4. 시사점 .....	7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 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제 연 구 실 : 이택근 연구위원 (2072-6366, tklee@hri.co.kr)

## Executive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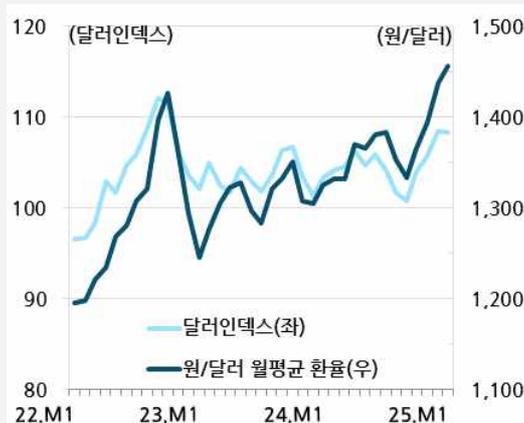
### □ 환율 안정은 한·미 경제성장률 격차 축소가 해법이다

- 원/달러 균형환율의 추정과 시사점

#### ■ 최근 원/달러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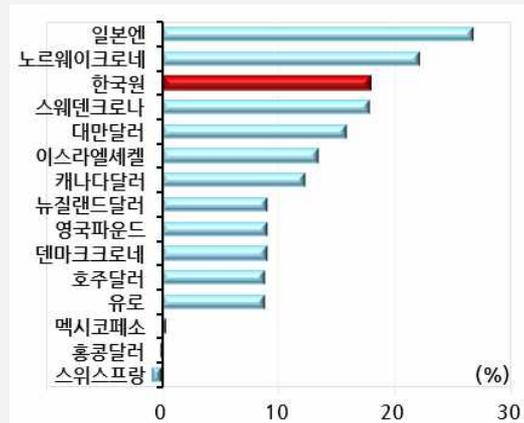
2022년부터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촉발된 글로벌 달러화 강세 현상이 지속 중이며, 특히, 원화 약세 폭은 주요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하여 미국 달러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달러 인덱스(Dollar Index)는 2022년 1월 96.5에서 같은 해 9월 112.1까지 급등하였으며, 최근에도 100을 크게 상회할 정도로 달러화의 초강세가 지속 중이다. 우리 외환시장에도 이러한 글로벌 달러화 강세라는 근본적인 힘이 크게 작용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같은 기간 1,195원에서 1,456원으로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한편, 주요 선진국 통화 15개의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검토해 볼 경우, 2022년 1월 대비 2025년 1월의 절하율은 원화가 일본 엔화(26.8%)와 노르웨이 크로네화(22.2%)에 이어 세 번째(17.9%)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 원/달러 환율 및 달러 인덱스 추이 >



자료: BOK, FED.

< 주요 선진국 통화의 달러화 대비 절하율(25년 1월 / 22년 1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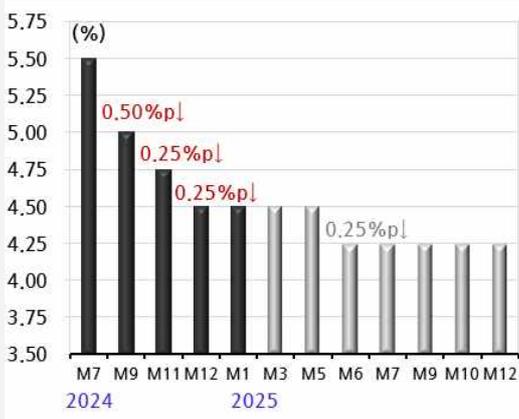
자료: BOK.

#### ■ 원화 약세의 원인

미 연준의 트럼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조치로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경제성장률 역전 장기화 및 한국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최근 들어 원화가 큰 폭으로 약세를 보이는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 측 요인으로 시장에서는 트럼프 노믹스(관세 인상, 감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과 그에 따른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크게 감속(減速)할 우려로 인해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측 요인으로는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는 데에 따른 원화의 저평가 현상이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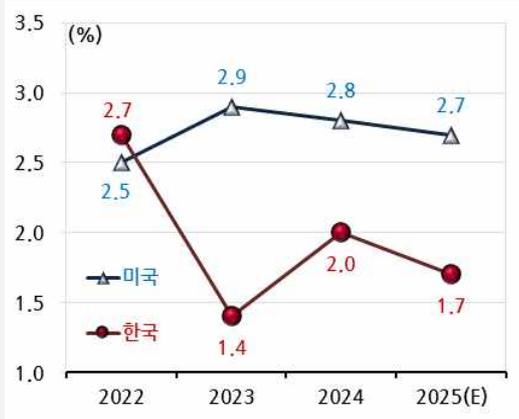
속 중이다. 무엇보다도 내수 침체로 미국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3년 이후 2025년까지 3년 연속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환율 결정의 가장 핵심 요인인 양국 간 펀더멘털의 격차가 원화 약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FED WATCH의 연준 정책금리(상한) 전망 >



자료: BOK, FED.  
주: 전망치는 가장 확률이 높은 구간.

< 한국과 미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BOK.  
주: 2025년 전망치의 경우 미국은 IMF, 한국은 현경연.

■ 원/달러 균형환율 추정

① 개념과 추정 방법

균형환율이란 현재의 경제 수준 하에서 적정한 통화가치를 나타내는 환율로서, 행태균형환율(BEER) 방법론을 통해 주요 경제변수와 균형환율 간의 관계를 추정된 후 균형환율 수준을 도출하였다. (개념) 균형환율이란 현재의 경제 수준 하에서 적정한 통화가치를 나타내는 환율로서,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대외부문과 대내부문의 균형을 달성하는 수준의 환율을 의미한다. (추정 방법) 본 분석에서는 행태균형환율(Behavioral Equilibrium Exchange Rate, BEER) 방법론을 이용하여 원/달러 균형환율을 추정하였다. (추정 과정) 본 분석에서는 주요 경제변수의 안정성과 공적분 관계를 확인 후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장기 균형관계에서 추정된 파라미터값과 주요 경제변수를 활용해 균형환율 수준을 도출하였다.

② 추정 결과

균형환율을 추정한 결과 2024년 12월 균형환율은 1,351원으로 실제 12월 원/달러 평균환율 1,437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괴리율은 약 6% 수준으로 현재 원화가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태균형환율을 추정한 결과 2021년 하반기부터 원/달러 환율이 균형환율 수준을 상회(원화 저평가 상황)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균형환율은 1,351원으로 실제 12월 원/달러 평균환율 1,437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행태균형환율을 바탕으로 실제 원/달러 환율과의 괴리율을 계산해 본 결과,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속도와 폭이 확대되면서 2024년 12월 기준 대략

6% 저평가되어 있었다. 실제 원/달러 환율은 균형환율보다 높은 수준(원화 저평가 구간)에 있어 현재 수준에서 향후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미-중 무역갈등 및 글로벌 관세전쟁 등으로 인해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외생적 충격으로 인해 실제 원/달러 환율이 균형환율 수준에서 이탈했을 경우 상당한 시간(대략 평균 24~30개월)에 걸쳐 균형환율 수준으로 회귀하므로 향후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미-중 무역갈등 및 글로벌 관세전쟁, 미국 디스인플레이션 둔화와 금리인하 지연 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상존한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균형환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점도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그럴 경우 1,400원대의 환율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원/달러 균형환율 장기 추이 >



< 원/달러 균형환율 단기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원/달러 균형환율은 한·미 간 CPI를 이용하여 실질 균형환율을 명목 균형환율로 변환

■ 시사점

원화의 과도한 저평가 국면을 해소하고 시장 변동성이 기업의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첫째, 최근 원화 약세의 주된 원인이 한·미 금리 역전이 아니라, 한·미 경제성장률 역전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금리 인하를 통해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환율을 안정시키는 방향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미-중 무역갈등 및 글로벌 관세전쟁, 미국 금리인하 지연과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글로벌 경제 상황과 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필요시 적극적인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이 요구된다. 셋째, 추세적인 균형환율 상승 및 원/달러 환율의 급변동으로 국내 물가 상승 및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원/달러 환율의 급변동 및 환율 상승에 영향을 받기 쉬운 수출입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확충 및 기업들의 자체적인 환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1. 최근 원/달러 환율 동향

○ 2022년부터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촉발된 글로벌 달러화 강세 현상이 지속 중이며, 특히, 원화 약세 폭은 주요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2022년부터 시작된 달러인덱스 강세 현상(96.5→112.1)과 함께 원/달러 월평균 환율도 급격한 상승세(1,200원대→1,430원대)를 보임

-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하여 미국 달러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달러인덱스(Dollar Index)는 2022년 1월 96.5에서 같은 해 9월 112.1까지 급등함
- 최근에도 달러인덱스는 100을 크게 상회(1월 108.4)할 정도로 달러화의 초강세가 지속 중
- 원/달러 환율도 이러한 글로벌 달러화 강세라는 근본적인 힘이 크게 작용하는 가운데, 같은 기간 1,195원에서 1,456원으로 급격하게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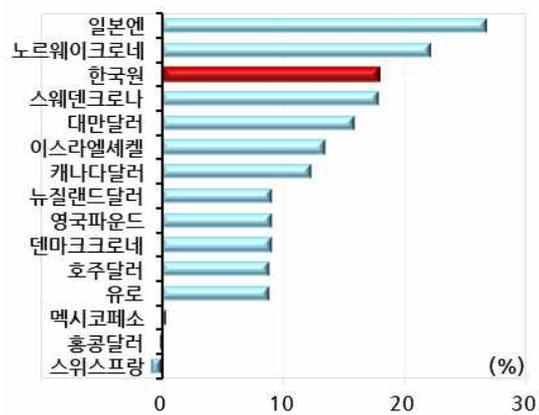
- 한편, 주요 선진국 통화 15개의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검토해 볼 경우, 2022년 1월 대비 2025년 1월의 절하율은 원화가 일본 엔화(26.8%)와 노르웨이 크로네 화(22.2%)에 이어 세 번째(17.9%)로 높은 수준을 기록

< 원/달러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



자료: BOK, FED.

< 주요 선진국 통화의 달러화 대비 절하율(25년 1월 / 22년 1월) >



자료: BOK.

## 2. 원화 약세의 원인

○ 원화 약세의 원인으로 미 연준의 매파적 통화정책과 더불어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취약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

- 다른 주요 경제권에 비해 미 연준의 금리 수준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최근에는 트럼플레이션(Trumpflation)에 대한 우려로 매파(Hawkish)적 통화정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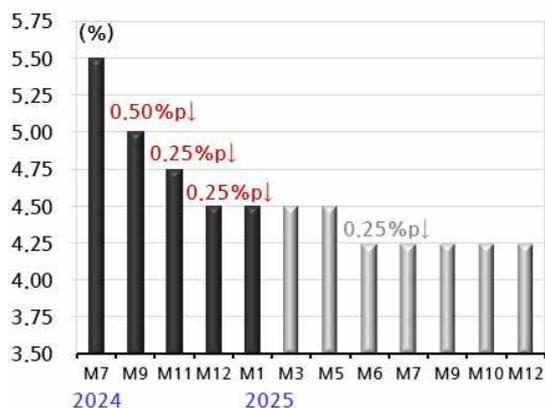
- 최근 들어 원화가 큰 폭으로 약세를 보이는 대외 요인으로 트럼프 노믹스(관세 인상, 감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과 그에 따른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크게 감속(減速)할 우려로 인해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임

- 국내 측 요인으로는 경제성장률이 최소 3년 연속 미국보다 낮을 정도로 한국 경제 펀더멘털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

-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는 데에 따른 원화의 저평가 현상이 지속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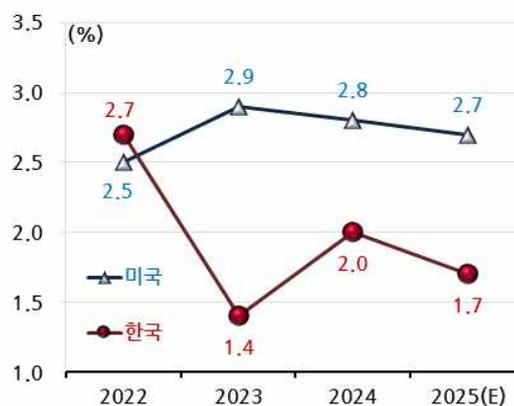
- 무엇보다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3년 이후 2025년까지 3년 연속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환율 결정의 가장 핵심 요인인 양국 간 펀더멘털의 격차가 원화 약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

< FED WATCH의 연준 정책금리(상한) 전망 >



자료: BOK, FED.  
주: 전망치는 가장 확률이 높은 구간.

< 한국과 미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BOK.  
주: 2025년 전망치의 경우 미국은 IMF, 한국은 현경연.

### 3. 원/달러 균형환율 추정

#### ① 균형환율 추정의 배경

- 환율의 변화 방향은 국가 경제 단위는 물론 가계와 기업의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현재 원화 가치의 적정 수준 평가가 미래 환율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환율은 기본적으로 양국 간 다양한 경제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므로, 기존의 연구결과들이 집약된 환율론에서 사용되는 보편적인 추정 방법을 통해 원화 가치의 적정 수준을 도출
  - 물론,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변수들이 미래 시점에 크게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원화의 평가 수준이 미래에도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음
  - 다만, 최근까지 원화 고평가/저평가 수준의 정도를 살펴, 근본적인 환율 변화의 힘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작용할지를 판단하는 것에 의미가 있음

#### ② 균형환율 추정 방법

- 균형환율이란 현재의 경제 수준 하에서 적절한 통화가치를 나타내는 환율로서, 행태균형환율(BEER) 방법론을 통해 주요 경제변수와 균형환율 간의 관계를 추정 후 균형환율 수준을 도출하였음
- (개념) 균형환율이란 현재의 경제 수준 하에서 적절한 통화가치를 나타내는 환율로서,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대외부문과 대내부문의 균형을 달성하는 수준의 환율을 의미함
  - 균형환율을 추정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매력평가설 접근법, 경제편더멘털 접근법, 행태균형환율 접근법, 자연환율 접근법 등이 존재함
  - 실제 원/달러 환율이 모형에 의해서 추정된 균형환율보다 높으면 원화가 저평가, 실제 환율이 균형환율보다 낮으면 원화가 고평가라고 해석됨

- (추정 방법) 본 분석에서는 행태균형환율(Behavioral Equilibrium Exchange Rate, BEER) 방법론을 이용하여 원/달러 균형환율을 추정하였음
  - 행태균형환율은 Clark and MacDonald(1999)가 제시한 개념으로 환율 이론을 바탕으로 환율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변수를 고려하여 환율의 행태를 설명하는 축약식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균형환율 수준을 도출함
  - Clark and MacDonald(1999)는 생산성, 교역조건, 순대외자산을 주요 경제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연구자에 따라 정부지출, 정부부채, 상품가격, CDS 프리미엄 등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균형환율을 추정함
  - 본 분석에서는 Clark and MacDonald(1999), Ca'Zorzi and Rubaszek(2023), MacDonald and Dias(2007), 전선애·김정한(2006)을 참고하여 실질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변수로 생산성, 교역조건, 실질금리차, 순해외자산, 외환보유고, 국제유가 등을 고려함
  - 2001년부터 2024년까지의 월별 원/달러 평균환율, 교역재와 비교역재간 생산성 차이(한미 간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의 비율), 상대적 교역조건(한미 간 수출입가격의 비율), 한미 간 실질금리차, GDP 대비 순대외채권 및 외환보유고 수준, 국제유가를 분석에 이용함
  
- (추정 과정) 본 분석에서는 주요 경제변수의 안정성과 공적분 관계를 확인 후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장기 균형관계에서 추정된 파라미터값과 주요 경제변수를 활용해 균형환율 수준을 도출
  - 분석에 있어 단위근(Unit root) 테스트를 수행하여 주요 경제 변수의 안정성을 확인함
  - 또한, Johansen 공적분 검정 결과 5% 유의수준에서 주요 경제변수 간 공적분 관계의 존재를 확인함
  - 한편,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할 경우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 분석이 되므로 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을 통하여 모형 파라미터를 추정함
  - 추정된 파라미터값과 주요 경제변수를 이용해 균형환율 수준을 도출하여 HP필터(Hodric-Prescott Filter)를 적용함

③ 추정 결과

○ 균형환율을 추정한 결과 2024년 12월 균형환율은 1,351원으로 실제 12월 원/달러 평균환율 1,437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괴리율은 약 6% 수준으로 현재 원화가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행태균형환율을 추정한 결과 2021년 하반기부터 원/달러 환율이 균형환율 수준을 상회(원화 저평가 상황)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균형환율은 1,351원으로 실제 12월 원/달러 평균환율 1,437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음<sup>1)</sup>

- 행태균형환율을 바탕으로 실제 원/달러 환율과의 괴리율을 보면,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속도와 폭이 확대되면서 2024년 12월 기준 약 6% 저평가

· 원/달러 환율은 2021년 하반기 이후 저평가 구간에 돌입, 2022년 괴리율이 대폭 확대되었다가 2024년 3분기까지 점차 축소되어 일시적 균형환율 수준에 도달. 그러나, 2024년 4분기부터 저평가 국면에서 괴리율이 재차 확대

·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비드 팬데믹 이후 두 번의 괴리율이 대폭 확대되는 구간이 발생<sup>2)</sup>. 해당 구간은 다른 시기보다 생산성 격차와 실질금리차가 급격하게 변동되었으며 또한 국제유가도 상승했던 시기로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괴리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

< 원/달러 균형환율 장기 추이 >



< 원/달러 균형환율 단기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원/달러 균형환율은 한·미 간 CPI를 이용하여 실질 균형환율을 명목 균형환율로 변환.

1) 추정에 사용된 주요 경제변수들이 일부 미발표되어 2025년 1월 균형환율은 추후 추정 가능.  
2) 2008~2010년 구간의 괴리율은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2014년 4월 29일)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됨.

- 실제 원/달러 환율은 균형환율보다 높은 수준(원화 저평가 구간)에 있어 현재 수준에서 향후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미·중 무역갈등 및 글로벌 관세전쟁 등으로 인해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
  - 외생적 충격으로 인해 실제 원/달러 환율이 균형환율 수준에서 이탈했을 경우 상당한 시간(대략 평균 24~30개월<sup>3)</sup>)에 걸쳐 균형환율 수준으로 회귀하므로 향후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임
    -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원/달러 저평가 국면은 2024년 3분기에 균형환율 수준에 일시적으로 근접한 바 있음
    - 그러나 이후 미국 대선에 따른 트럼프 트레이드, 미국 통화정책 경로의 불확실성,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재차 저평가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최근 미·중 무역갈등 및 글로벌 관세전쟁, 미국 디스인플레이션 둔화와 금리인하 지연 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상존
    - 과거 트럼프 1기 시절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되면서 1,070원대까지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지속 상승하여 1,220원대까지 도달함
    - 단, 글로벌 경기와 국내 경제 환경 등 다양한 영향도 존재하므로 당시 환율 상승을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또한, 최근 몇 년간 균형환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점도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그럴 경우 1,400원대의 환율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균형환율 추정 결과 명목기준 원/달러 균형환율은 2022년 12월 1,179원 → 2023년 12월 1,264원 → 2024년 12월 1,351원을 기록하며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외환시장에서는 상승(하락) 추세가 한번 시작되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최근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3) “실질균형환율의 추정 및 경상수지와 관계”, 「NABO 경제 동향&이슈」 제55호, 국회예산정책처

#### 4. 시사점

첫째, 최근 원화 약세의 주된 원인이 한·미 금리 역전이 아니라, 한·미 경제성장률 역전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금리 인하를 통해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환율을 안정시키는 방향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 한·미 간 금리 역전으로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금리를 내리게 되면 환율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논리도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됨
- 그러나, 반대로 원화 약세가 한국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 장기간 낮기 때문이라는 즉 양국 간 경제 펀더멘털의 격차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음
- 따라서, 근본적으로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이 외환시장 안정의 해법일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경기 전환이 가능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함
- 일부에서는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금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그 효과는 빨라야 하반기에 나타날 것이고, 기존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고려해 볼 때 재정정책은 충분히 경기 친화적인 기조임
- 이러한 재정정책의 경기부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필요함
-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방향성이 하강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경우, 성장률이 높아지고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상승하게 되어 외환시장도 점차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됨

둘째, 향후 미·중 무역갈등 및 글로벌 관세전쟁, 미국 금리인하 지연과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글로벌 경제 상황과 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필요시 적극적인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이 요구된다.

- 금융 당국은 향후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글로벌 경제 상황 및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 글로벌 경제 상황, 외환수급 변동 및 단기 자본 유출입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야 함
- 또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필요시 외환시장에 구두 개입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개입을 할 필요성이 있음. 단, 과도한 수준의 시장개입은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함
- 환율 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확대를 넘어 주요국과의 통화 스와프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함

셋째, 추세적인 균형환율 상승 및 원/달러 환율의 급변동으로 국내 물가 상승 및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가계의 실질 구매력 감소와 민간소비 부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이에 정책 당국은 환율로 인한 물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 소비재 및 에너지 가격 안정 대책을 점검하고,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등도 검토해야 함

넷째, 원/달러 환율의 급변동 및 환율 상승에 영향을 받기 쉬운 수출입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확충 및 기업들의 자체적인 환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sup>4)</sup>로 원/달러 환율 상승이 선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외환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임

4)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와 대응 방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5년 2월 6일

- 정부는 무역보험 및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와 외환전문 인력을 통한 컨설팅 지원도 모색하며, 필요할 경우 일시적 유동성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금융 지원책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품질 개선을 통해 환율 변동성에 대한 민감도를 낮춰 장기적으로 환율 변동에 강한 경영 환경을 구축해야 함

< 참고 문헌 >

- Bénassy-Quéré, A., Béreau, S., & Mignon, V. (2008). Equilibrium exchange rates: A guidebook for the euro-dollar rate (pp. 1-40). CEPII.
- Ca'Zorzi, M., & Rubaszek, M. (2023). How many fundamentals should we include in the behavioral equilibrium exchange rate model?. *Economic Modelling*, 118, 106071.
- Clark, P. B., & MacDonald, R. (1999). Exchange rates and economic fundamentals: a methodological comparison of BEERs and FEERs. In *Equilibrium exchange rates* (pp. 285-322). Dordrecht: Springer Netherlands.
- MacDonald, R., & Dias, P. (2007). Behavioural equilibrium exchange rate estimates and implied exchange rate adjustments for ten countries. Peters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Working Paper, February.
- 유승선. (2017). 실질균형환율의 추정 및 경상수지와 관계. 「NABO 경제 동향& 이슈」. 제55호, 국회예산정책처.
- 전선애 & 김정환. (2006). 원/달러 실질균형환율의 추정: 행태균형환율 접근법. *경제연구*, 24(2), 1-24. **HRI**

이택근연구위원 (2072-6366, tklee@hri.co.kr)